

「시놉시스」

청렴시청 김명호 동무는 근무중!

북한에서 내려온 초보 간첩 김명호는 상부로부터 ‘남한의 공직기강 붕괴’라는 지령을 받고 피나는 노력을 통해 9급 공무원으로 합격한다. 그리고 김명호는 청렴시청 총무과로 배정받는다.

그곳에서 김명호는 공직기강 붕괴를 위해 사소하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비리를 저지르려 하지만, 정직하고 꼼꼼한 청렴시청 직원들은 김명호의 사소한 실수들을 다 잡아낸다. 하지만 청렴시청 직원들은 실수가 많은(일부러 그러는 것이지만...) 김명호를 질책하지 않고 오히려 기운을 북돋아준다. 또한 시청 밖에서도 청렴함과 소신을 지키며, 공무원으로서의 바른 자세를 보여준다. 때문에 김명호는 간첩이지만 청렴시청 직원들에게 존경심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김명호의 느린 일처리가 맘에 들지 않았던 상부에서는 엘리트 간첩인 림영동을 청렴시청 총무과 과장으로 긴급 잡입시키며, 김명호와 함께 작전을 시행할 것을 명령한다. 림영동은 순식간에 청렴시청 총무과를 장악하고, 청렴시청 총무과 직원들의 어려운 사정을 자극해 그들에게 비리를 묵인하도록 권유한다.

하지만 청렴시청 직원들을 이런 림영동의 제의에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소신을 밝히며, 거절의 의사를 밝힌다. 이에 화가 난 림영동은 정체를 드러내고 또다른 엘리트 간첩들을 불러 청렴시청 직원들을 위협에 빠뜨린다.

이 때 청렴시청 직원들을 통해 마음을 고쳐먹은 김명호는 순간적으로 사무실의 불을 끄고 경찰을 부르며 기지를 발휘한다. 결국 김명호의 기지를 통해 림영동은 경찰에 체포되고, 청렴시청 직원들은 무사히 위기를 벗어나게 된다. 하지만 역시 정체가 탄로난 김명호은 자신도 역시 쫓겨나기 위해 체포된다.

그리고 1년 후 사건을 치르고 다시 평화를 되찾은 청렴시청 총무과에 계약직 근로자 한명이 발령받는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은 바로 김명호. 모든 짐을 벗어던진 김명호은 웃으며 모두에게 인사한다.

“조금 늦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등장인물」

김명호 (남, 26세) : 어떻게 간첩이 됐을까 싶을 정도로 어리버리하고 무식한 성격이다. 하지만 어린 마음과 성실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청렴시청을 밑바닥부터 무너뜨리기 위해 자신만의 방식대로 노력하지만, 성실하고 청렴한 청렴시청 사람들을 보고 마음을 고쳐먹는다.

한강직(남 : 45세) : 청렴시청 총무과 계장. 청렴 공무원의 표본과 같은 인물. 기러기 아빠. 자식들에게 보내는 돈 때문에 매사 고민이 많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는다 공무원이란 직업에 자긍심을 가지고 매일 성실하고 청렴한 자세로 자신의 일에 임한다.

조용만(남 : 30세) : 청렴시청 총무과 주임. 매사 우직하고 정직한 자세로 근무한다. 노총각, 아픈 어머니 때문에 연애도 못하고 이래저래 힘든 일이 많다. 하지만 이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원망하지 않는다.

정유미 (여 : 25세) : 청렴시청 총무과 9급. 당차고 활발한 성격. 왈가닥. 하지만 칙칙하고 지루한 총무과의 비타민 같은 존재이다.

정룡하 : (남 50세) : 북에서 김명호에게 지령을 전달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차갑고 냉철한 성격이지만, 부담스럽고 어리버리한 명호 때문에 감정을 억누르기 힘들어한다.

림영동 : (남 : 45세) 38선만 수십 번을 넘나든 베테랑 간첩, 일명 ‘평양 살팽이’ 배트맨에 나오는 조커와 같은 느낌을 주는 인물이다. 극 후반에 청렴시청 총무과 과장으로 위장 전입한다. 교활한 방법으로 청렴시청 직원들을 유혹하려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본색을 드러내고 만다.

강 사장: (남 : 40세) 강직의 이웃, 강직의 소개와 도움으로 시청에서 지원을 받게 된다. 우연찮게 술집에서 강직을 보고 강직에게 사례하고자 하지만, 청렴한 강직이 단호하게 거절한다. 처음에는 이를 이해 못하지만, 결국 강직의 소신을 이해하는 인물.

배테랑 간첩 1,2,3 : 청렴시청 직원들을 위협에 빠뜨리는 림영동의 부하들.

경찰1,2,3 , 국정원 요원 : 명호의 신고를 받고 청렴시청 사무실로 간첩들을 잡으러 온다. 하지만 역시 간첩인 명호의 정체를 알고, 명호 역시 체포한다.

2016 반부패·청렴콘텐츠 공모전 출품작.

청렴시청 김명호 동무는 근무중!



국민권익위원회

프롤로그 (임무전달)

(BGM 울리며, 불이 켜지면 중앙에는 의자가 하나 놓여있고, 그 의자에는 명호가 결연한 표정을 한 채 앉아있다. 그리고 명호의 뒤편 좌측에는 정룡하가 표독스러운 표정을 한 채 지휘봉을 들고 서 있다. 명호 결연한 표정이기는 하나, 살짝 졸이 쑤신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정룡하 : (표독스러운 표정은 계속 유지한채 근엄한 말투로) 이보게! 김명호 동무!!! 드디어 자네도 우리 공화국의 혁명 전사로서 첫 임무를 안게 되었네! 기쁜 마음을 안고 이번 임무에 충실해주기 바라네!!

명호 : (자세를 꼳꼳히 하고, 떨리는 목소리, 바보같기도 함) 네 알겠습니다우! 동무! 내래 우리 공화국의 긍지를 걸고! (관객들을 가리키며) 저 남조선 반동분자들의 가슴팍에 총칼을 탁!!!! 꽂아버리겠습니다!!!

정룡하 : (너무 기합이 찬 명호가 부담스럽다는 듯이)어...저 김명호 동무

명호 : 예! 정룡하 동무!! 무엇이든지 맡겨 주시라우!!

정룡하 : 어...그러니깐...그게

명호 : (갑자기 일어서며 기합이 최대로 들어간 모습으로! 정룡하의 손을 붙잡으며) 동무!! 이 날만을 기다려 왔습니다!!! 무엇이든 시켜만 주시라우! 백명! 천명!의 적군이 와도 전 이 한몸을 불태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룡하 : (명호를 부담스러워 하며 손사래 친다.) 동무!! 너무 기합이 들어갔구려!!! 앉으라우!

명호 : (살짝 기가 죽은 채.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다.) 아... 알겠습니다!!

정룡하 : (부담스러운 명호 때문에 살짝 표정과 자세가 풀림. 그리고 말을 흘리며) 어...동무가 이번에 맡게 된 임무는...기존 우리 혁명 전사들이 맡았던 임무와는 조금 다른...방식의...임무라우

명호 : (조금 당황하며)예?...그게 무슨???

정룡하 : (헛기침을 하며 다시 근엄한 자세 유지) 어...엣험... 동무가 이번에 맡게 된 임무는 아주 치밀하고도 힘겨운 임무라우!

명호 : (다시 눈이 반짝이며) 무엇이든지 맡겨주시라우!!

정룡하 : 동무가 이번에 맡아야 할 임무와 목표는 바로!!! 남조선의 공공기관들이라우!! 동무는

어떻게든 그 기관들에 들어가 갖은 교활한 수를 다 써서 남조선 공무원들을 부패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남조선의 공직기강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야하오!!

명호: (더 눈을 푹망푹망하게 뜨며) 오오!!! 동무!!! 이거이거!! 엄청난 일 아납네까!!! 이런 일을 저에게 맡기시다니!!! 가슴에서 뜨거운 혁명의 불꽃이 (일어나 가슴을 짹 쥐며) 아주 미친 듯이 용솟음칩니다!!

정룡하: (또 다시 명호를 진정시킨다.) 동무! 동무!! 진정하고 좀 앉으라우. 그 전에 일단 남조선의 공직에 입문하기 위해서 몇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우

명호 : (애써 침착) 네! 그게 무엇입네까? 맡겨만 주시라오!

정룡하 : 어... 그게 말이지! (정룡하 뒷편에서 공무원 시험 책들을 한아름 꺼낸다. 그리고 명호를 잠시 쳐다본 후 명호에 팔에 책들을 안긴다. 명호 당황하며, 책들을 받는다.) 일단 이 책들을 다 읽고 내년 4월에 있을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먼저라우!

명호 : 예?? 아니 이게 무슨...

정룡하 : 이미 자네를 위해서 남조선에 있는 노량진이란 곳에 임시 거처를 마련해 뒀네! 그리고 (정룡하 주머니에서 식권을 꺼내 명호에게 쥐어준다.) 이건 남조선에서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식권이라네!. 개인적으로는 노량진역 3번출구. 학사짱식당의 돈까스를 추천한다우!

명호 : (여전히 어리버리하게 상황파악을 못하고 정룡하를 쳐다만 본다.)

정룡하 : 걱정말게나 동무! 분명 금방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거라우! 얼마나 시험이 쉬우면, 한해 수십만명이 되는 남조선 젊은이들이 이 시험에 마구잡이로 지원한다 하더군!

명호 : 어... 지원자가 많다는 것은 그러니깐 시험 경쟁률이...

정룡하 : (명호의 말을 끊으며) 나약한 소리 말라우!! 동무! 동무는 우리 공화국의 엘리트 특급 전사가 아닌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할걸세! 무조건 해내야 할 것이야!! (명호에게 옥박지르며) 알겠나!!

명호 : (놀란 모습을 하다 다시 결연한 표정을 짓는다 그리고 일어나 경례하며 기합을 다진다.) 아...알겠습네다!!! 동무 내래! 반드시!! 남조선의 공직기강을 무너뜨리고 그 중심에 우리 공화국의 깃발을 꽂겠습네다!!!

정룡하 : (같이 경례하며 결연하고 큰 목소리로) 그래 !!! 알겠네 동무!!!!
(경례를 하는 두 사람을 보여주며 암전)

제 1 장 (청렴시청 총무과 사무실)

(다시 불이 켜지고, 사무실 분위기가 나는 무대가 펼쳐져 있다. 무대 중앙에는 잠시 후에 쓸 소품들이 들어있는 박스가 놓여져 있다. 무대 좌측에서 명호 역시 기합이 찬 걸음으로 걸어온다. 명호에 손에는 프롤로그에서 받은 책과 컵밥으로 보이는 종이 그릇이 쥐어져있다. 명호 무대 중앙으로 천천히 이동 후, 마치 쇼생크 탈출을 떠오르듯 무릎꿇고 두 손을 번쩍 든다.)

명호 : (입을 벌리고 바보처럼 있다가 관객들을 쳐다보더니, 다시 민망함을 느끼고 일어선다.) 정말... 힘든...여정이었습니다... 금방 합격하긴 개뿔... 3년만에 겨우 붙었구만...

명호 : 이제 드디어!!! 저 지긋지긋한 행정학 책. 그리고 짜디짤 컵밥과도 안녕이구나!!!(명호가 가지고 있던 종이그릇과 책을 무대 바깥으로 있는 힘껏 던진다.)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결의를 다지고 눈을 크게 부라리며) 아니야!! 이럴때가 아니지!! 이제 드디어 나의 임무를 펼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관객들을 가리키며) 이 일밖에 모르는 남조선의 기계같은 공직자들의 청렴함과 기강을 무참히 박살 내주겠어!! 기대하라우!!

(이 때 무대 우측에서 강직, 용만, 유미 서로 점심을 먹고 온 듯 잡담하며 들어온다. 명호 이들을 보자 당황하며, 신입 공무원인 척 뻔뻔한 자세로 변한다.)

용만 : (명호를 보고 낯선 눈빛으로) 응? 누구...시죠?

명호 : 아... 저는!!

강직 : (핸드폰을 잠시 만지작 거리더니) 아...아아!! 오늘 우리 부서로 새로 전입온 저..김..명호씨?

명호 : 네!! 그렇습네!! 아니...아니 그렇습니다!

유미 : 아아!! 그렇군요~ (명호의 손을 잡는다. 명호 흠칫 놀란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유미라고 해요! 이거 정말 반갑구만! 반가워요~!!

명호 : (당황함) 아...아 네네!!

강직 : 아~ 이거 나도 같이 인사를 해야겠구만... 반가워요 김명호씨 우리 청렴시청 총무과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명호에게 악수를 건넨) 난 총무과 계장 한강직이네.

명호 : (악수를 받으며) 네...반갑습네다!!....아니아니 반갑습니다!! 김명호라고 합니다.

용만 : 하하 오늘 첫근무라 긴장이 바짝 되셨나봐요. (귀엽게 손을 들며) 저는 조용만 주임입니다.

유미 : 걱정마세요~ (명호에게 다가가 눈치보며 귓속말) 우리 계장님이 조금 많이 짹세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분이시니깐 괜찮을 거예요~

강직 : 어허 유미씨...다 들리는데...

유미 : (놀라는 시늉만 하며) 아이고~

강직 : 김명호씨... 처음하는 일이라 조금 어렵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 보다 더욱 철두철미하고 꼼꼼한 일처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분명히 다른 곳에서 큰 문제가 생길 겁니다.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일해주는 시간 만큼은 약간의 긴장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주길 바랍니다!

명호 : 네!! 알겠습니다!!

용만 : (명호의 어깨를 잡으며) 하하 아무리 말해도 역시 부딪쳐보고 겪어봐야 아는 것 아니겠어요? 그때그때 모르는 게 있으면, 꼭 저한테 물어봐요.

강직 : 아아 이제 점심시간도 끝났고~ 명호씨한테 좀 가혹하지만, 이제 다시 일을 시작해볼까? 유미씨 일단 명호씨 데리고 간단한 일들 교육좀 해줘요

유미 : 네 알겠습니다~

용만 : 어휴 나도 빨리 남은 서류들 정리 해야지...

(강직, 용만, 유미 각자 자리에 앉고 명호 멀뚱히 중앙에 위치하는 순간, 잠시 시계 초침 소리가 울리며, 명호를 제외한 모든 인물들 정지)

명호 : 좋았어!!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다! (뒤에 있는 강직, 용만, 유미를 바라보고 난 뒤) 하하 다들 단단히 각오하라우!! 내래 고난의 행군 시절! 우리 공화국 선배들에게서 보고 배운 비리기술들을 모조리 활용해서 이 청렴시청 총무과를 (손으로 주먹을 짝 쥐고) 산산히 부숴 주겠어!!

(이때부터 한심하고 바보같은 분위기의 BGM 흐르며, 명호의 임무수행(바보같은 일처리)와 이를 모르고 지적하는 청렴시청 총무과 직원들의 분위기를 빠르게 보여줌)

명호 : (옆에 있는 박스에서 서류 뭉치를 꺼낸다. 나름 교활한 표정을 짓지만, 어딘가 모르게 어리숙하고 귀여워보인다.) 일단 먼저 서류 조작부터 해볼까? (서류를 보는 척 하며) 일단 이번달 시청 예산안부터 손대볼까? 하하하

(이때 강직 갑자기 일어나 명호 쪽으로 달려온다. 그리고 명호가 가지고 있는 서류뭉치를 능청스레 빼앗는다.)

강직 : 어허! 명호씨 이 서류는 내 담당이네~ 열심히 하는 것은 좋지만, 서로 해야할 일은 따로 있는 거예요~

(강직 서류 뭉치를 가지고는 다시 자기 자리로 이동 명호 강직과 관객석을 쳐다보며 우물쭈물함)

명호 : 이...이런, 아직 내가 말단이라 이기이기 힘이 없구만... 어쩌면 좋지~ 어쩌면 좋지... 좋았어 이번엔 공금! 공금횡령이다우!! (명호 다시 박스에서 돈뭉치를 꺼낸다.) 이렇게 많은 돈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몇 만원 빼간다 해도 잘 모르겠지?? 하하하 (명호 소심하고 찌질한 모션을 취하며 돈뭉치에서 만원짜리 몇장을 빼낸다. 그리고 그 돈을 주머니 속에 쑤셔넣는다. 단 돈 몇만원을 훔친거지만, 기분은 마치 몇십억을 빼낸 기업 고위임원의 기분이다.)

(이때 유미 자리에서 일어나 명호에게 다가온다.)

유미 : 명호씨! 제가 부탁한 공금들 다 계산 하셨나요?

명호 : (다시 당황하고, 별별떠는 손으로 유미에게 남은 돈다발을 건넨다.) 아..아!! 네!! 그렇습니다. 이번 청렴축제 포스터 제작비용 260만원 입니다!

유미: 네 고마워요~ (돌아가려는 찰나 갑자기 유미 돌아서더니 돈을 신들린 속도로 세기 시작한다.) 앵? 지금 보니까 3만원이 비는데??? 명호씨 돈 똑바로 센거 맞아요?

명호 : (완전 당황) 아아!! 네??? 네!! 저..저는 그런 사실 없습니다!! 저 부...분명히 돈을 올바르게 셧는데... 그...그래도 3만원 정도면 없어도...그...그렇게 티 나진 않지 않겠습니까?

유미 : 예~~에에? 어디 그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세요~!! 총무과 공무원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개그콘서트 끝사랑에 나오는 김영희처럼) 양대요! 어휴 이걸 어쩌면 좋담... (그런데 갑자기 유미, 냄새를 쿵쿵 맡는 척 하더니, 명호의 주머니로 코를 갖다댄다. 명호 흠칫 놀라며 당황한다.)

명호 : 아니 왜 그러십니까?!!

유미 : 이상하다. 여기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유미 명호의 주머니에 손을 넣는다. 그리고는 명호 주머니에 있던 3만원을 꺼낸다.) 찾았다!!!! 명호씨!!(3만원을 손에 쥐고 흔들며) 아니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예요!! 돈을 여기다 놓았으니깐, 3만원이 비는 것 아니겠어요!!

명호 : 아니 이걸 어떻게...

(갑자기 뒤에 있던 강직 일어난다.)

강직 : 역시! 우리 유미씨!!! 개코야 개코!!! 돈냄새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맡는다니깐!(엄지 척)

용만 : (따라 일어나며) 역시 총무과 에이스!! 저 개코 때문에 생활의 달인까지 출연했을 정도니! (역시 엄지 척)

(용만 강직 같이 엄지 든 후 자리에 앉는다.)

명호 : 예?! 이런 말도 안되는...

유미 : (코를 검지손가락으로 치켜세우며) 후후 명호씨~! 잠시 실수하신 것 같은데, 다음 부턴 주의하세요~ (유미 돈을 제대로 정리한 후 자리로 돌아감)

명호 : 이...이럴수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아니 사람이 맞는건가? (두 손으로 뺨을 치며 정신 차리는 모습 취한 뒤) 역시 남조선 공무원들은 대단하구만... 휴우 다른 방식으로 천천히 접근해야겠어! (다시 서류뭉치를 꺼내고) 이번엔!!!!

(갑자기 용만 어마어마한 양의 종이 탑을 들고 명호에게 달려온다.)

용만 : 어어!! 명호씨 이것 좀 복사해줘

(명호 용만이 준 서류더미를 어설프게 받고 흔들린다. 그리고 이리저리 무너지려는 서류더미 때문에 휘청거리다 결국 서류더미를 날리며, 우스꽝스럽게 넘어진다.)

용만 : 아이!! 명호씨 그걸 떨어뜨리면 어떻게 해!!!

명호 : 아아...죄송합니다...(관객들을 보며) 아이고!!!
이기가기 남조선 공무원은 쉽지가 않구만요!!!!!!!!!!

(무대 중앙 신세한탄하고 있는 명호, 팔을 허리춤에 얹고 못마땅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용만, 각자자리에서 그런 명호를 빼꼼히 쳐다보는 강직, 유미를 보여주며 암전. 1장 마무리)

제 2 장(시청 옆 작은 술집)

(다시 불이 켜지면, 고깃집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동그런 드럼통 모양의 테이블이 중앙에 놓여 있다. 그리고 그 테이블엔 유미,강직,명호,용만이 모여 앉아있다. 명호는 오늘 출근해서 일이 잘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시무룩한 표정이다. 강직은 그런 명호 옆에 앉아 등을 두드려 주고 있으며, 용만과 유미는 서로 술잔을 주고받고 있다.)

강직 : 명호씨 오늘 힘들지 않았나?

명호 : (살작 울상으로) 아...아닙니다...

용만 : (명호의 어깨를 두드려 주며) 아이고 명호씨 오늘 뭐 별일 없었는데, 뭘 그렇게 기죽어 있어요.

유미 : 그래요, 명호씨! 아까 돈 빵꾸날 뻔한 것도 제가 잘 처리해줬잖아요..

명호 : 아니... 아무일도 안 일어나서 그런거란 말입네...(명호 말끝을 흐리며 말실수를 인지)가 아니고 저 하하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하 (힘없고 멧쩍은 웃음)

용만 : 그래요! 그런 자세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우리 청렴시청 총무과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 겁니다.

명호 : 가...감사합니다..

강직 : 자자! 우리 이러지 말고 오늘 처음 발령받은 명호씨를 위해 한 잔 하지!! 자 건배!

(모두 잔을 들고 술을 마신다.)

유미 : (술을 마신 뒤) 아참! 그건 그렇고 조 주임님! 이번에 어머니 수술은 잘 났어요?

명호 : (혼잣말 하듯) 수술? (이때부터 용만, 강직, 유미의 사연들이 이야기될 예정. 간첩이지만, 마음 여린 명호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인다. 눈물도 찼끔 나오려 하지만, 겨우겨우 참는다.)

용만 : (살짝 한숨)네 다행히도 별 문제없이 잘 끝났어요.

강직 : 그래.. 그것 참 다행이네... 조 주임이 고생이 참 많았겠어.

용만 : 에이 고생은 뭘요... 당연히 해야하는 일인데..

강직 : 그래도 어머니 수술비에, 병원비에 돈 들어가는 곳이 한둘이 아닐텐데...그리고 이제 조 주임도 결혼할 나이도 났고...

유미 : 그래요 조 주임님...제가 다른건 몰라도 제 친구중에서 조 주임님이랑 어울리는 애 한 명 꼭 찾아서 소개시켜줄게요.

용만 : (손사레치며) 어휴 괜찮아요. 뭐 저만 힘든가요. 서로 힘들어도 다 참고 사는거죠. 그리고 지금은 결혼보다도 어머니 건강이 더 먼저예요.

강직 : 휴우... 이럴 때 일수록 내가 자네한테 더 힘이 되어주어야 할텐데...

용만 : (멧쩍게 웃으며) 괜찮습니다. 오히려 저는 계장님 볼 때 마다 더 안타까운걸요.

유미 : 맞아요. 벌써 사모님이랑 두 남매 미국에 보내신지 4년째잖아요.

강직 : 에이 뭐 그런걸 가지고, 요즘 세상에 기러기 아빠가 한둘인가...

용만 : 그래도 외로움이 크실텐데... 매달 보내는 생활비도 만만치 않을테고...

강직 : 괜찮아 괜찮아... 내가 좀 아끼고 살면 그냥 저냥 살만해...

유미 : 아이...계장님도 참... 저번에 댁에 갔을 때도 냉장고도 텅텅 비고 바닥도 얼마나 차갑던지... 제가 눈물이 다 날 지경이었다고요.

강직 : 아이 참 창피하게...그런 소리를... 다 뭐 그렇게 사는 거지 (멋쩍은 웃음)... 나 걱정할 시간 있으면, 유미씨나 걱정하라고 허허 이제부터 학자금 대출 상황 시작이지?

유미 : (칭얼대듯)아아 계장님 잊고 있었는데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완전 기분 다운 되네!!

용만 : (장난스럽게)아이고~ 우리 총무과 식구들은 언제쯤 해뜰날이 올려나~

강직 : (용만의 대사를 살리듯)아이고 ~ 술 잔 한잔 털어놓고 나면 올지도 모르지

유미 : 그래요~ 언젠간 오겠쥬~ 자 건배해요~

다 같이 : 건배!

(강직, 용만, 유미 살짝 느리게 술잔을 넘긴다. 이는 명호가 이 사이에 대사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명호 : 아...아니 여기 사람들...왜 이렇게 힘든일이 많나우? 완전 우리 공화국이랑 다를 게 없구만... 아이고 불쌍해라...

(강직, 용만, 유미 술을 다 마시고 술잔을 다시 테이블에 놓는다.)

유미 : 크으~~ 완전 종구만유~

용만 : 그러게~ 오늘 완전 잘 들어가는데!

강직 : 자...그래도 내일 다시 출근해야 하니깐 적당히들 마시라우 (명호의 어깨를 잡으며) 알겠나 동무??

명호 : (명하니 앉아있다가) 아 알겠습네다! 한강직 동무!!

강직 : (잠시 이상하다는 듯 명호를 바라보다가)응? 이야! 우리 명호씨 북한말 엄청 잘하네 완전 북한사람 수준인데!!

용만 : 그러게요! (장난스럽게) 혹시 북한군에서 내려온 간첩 아니에요?

명호 : (완전 당황해서 북한 억양으로) 아!! 아!! 아닙네다!! 간첩이라니요!! (다시 상황파악 후 두손으로 뺨을 치며 상황을 모면하려는 듯 실없는 웃음) 하하 제가 간첩일 리가 없죠. 어느 간첩이 미쳤다고 3년동안 공무원시험 보면서 여기 들어오겠습니까? 하하하!!

유미 : 하긴 아무리 간첩들이 독종이라도 저 노랑진 바닥에서는 3년은 무슨. 3개월도 못 버틸걸요~!

용만 : 자자 간첩 이야기는 그만 하고 우리 한잔 더 합시다. 자~ 건배

(모두 다시 술잔을 주고 받으며 건배한다. 이때 무대 좌측에서 강 사장 등장한다. 강 사장 직원들이 있는 테이블을 힐끔거리며 다가오다가 강직을 보자 갑자기 화색이 된다.)

강 사장 : (강직을 보자 반가운 목소리로) 아이고~ 한 계장님 아니신가요~ 안녕하세요!

강직 : 아~ 강 사장님 반갑습니다! (강 사장과 악수) 어찌 요즘 가게는 잘 되고 있으신가요?

강 사장 : 암요 그렇구 말구요~ 저번에 한 계장님이 신청하라고 하신 소상공인지원사업 덕분에 가게도 더 탄탄해지고 매출도 많이 늘었구만유~

강직 : 모두 다 강 사장님이 성실해서 그런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강 사장 : 아이구~ 아니구만유. 한 계장님이 말씀 안해주셨으면, 저같은 사람들은 그런 사업이 있는 줄도 몰랐을 거예요~

강직 : 하하 전 그저 시청 공무원으로서 좋은 정책과 사업을 홍보했을 뿐입니다.

강 사장 : 아이구 겸손도 하셔라. 언제 한 번 제가 식사대접이라도 해야 할텐데...

강직 :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전 해야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강 사장 : 증말 우리 한 계장님은 너무 강직하시구만유

강직 : 그래서 제 이름이 한강직 아니겠습니까? (아저씨 같은 웃음) 하하하

(명호, 용만, 유미, 강 사장 표정 일그러짐)

강 사장 : 역시 너무 강직하셔서, 유머감각도 아주 그냥 목석 같으시구먼유.

강직 : (창피한지 헛기침)음...어험

강 사장 : 아이구 사람이 어찌 다 그렇게 완벽하겠어유~ 아참 그럼 그렇다면 저 혹시 지금까지 얼마 드셨나요?

유미 : 음~ 보자 소주 10병에 안주 2개니깐...한 7만원쯤 나오지 않을까요~

강 사장 : 그럼 저~ 여기 테이블에 있는 것만이라도 허허 (무대 밖을 바라보며 누군가를 부르듯) 저기요 사장님 여기 계산좀 해주세요~

강직 : 아이고~ 안됩니다. 강사장님 저희는 공무원입니다. 이러시면 안됩니다.

강 사장 : 어휴~ 이정도 가지고 뭘 그래유~. 한 계장님 너무 뽀뽀하시구만유~

용만 : 강사장님 저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용만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려 한다.)

강 사장 : (용만의 지갑을 주머니 속으로 밀어넣는다.) 에헤이 넣어뒀유 넣어뒀! 내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유~

명호 : (이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지만 직원들과 같이 동조) 저...저기 이러시면...

강 사장 : (살짝 답답한지 연성이 높아짐) 어허 괜찮대두~! (지갑을 열고 카드를 꺼내려 한다.)

(이때 강직 갑자기 벌떡 일어난다.)

강직 : (호통치듯) 이봐요! 강 사장님!!

(강직을 제외한 모든 인물들 깜짝 놀라 잠시 경직된 듯 정지한다.)

강직 : 몇 번을 말씀드립니다까?! 저희는 나라와 지역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이런 호의를 받을 수도 없고, 받아서도 안됩니다! 자꾸 이러시면, 저희도 이 사실을 더 이상 눈감아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강 사장 : (당황해서 조금 떠는 목소리로) 아...아니 저는 그냥 너무 감사드려서....

강직 : (앞으로 와 강 사장의 어깨를 잡으며 다소 누그러진 목소리로) 강 사장님. 저에게 감사할 것 없습니다. 강 사장님이 정직하게 흘린 땀으로 빛은 성공입니다. 저는 그런 강 사장님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큰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강 사장 : 한...한계장님

용만 : (일어나서) 그래요. 저희 모두 똑같은 생각입니다. 강 사장님이 저희한테 지금 하시려는 행동은 오히려 저희를 욕보이는 행동입니다.

유미 : (맞장구치듯 일어나며) 암요~ 그렇구 말구요~

명호 : (눈치로 일어남)저...어...에... 그렇지요...

강 사장 : (잠시 휴지) 네...알겠구먼유... 아쉽지만 어쩔 수 없구먼유. 정말 죄송합니다.

강직 : 너무 자책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누구든지 다 그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욱 솔선수범 하는 것일 뿐입니다.

용만 : 이해해주세요. 강 사장님. 정 없고 딱딱하지만, 저희가 먼저 선을 지켜야지만, 공직에서 떳떳하게 일 할 수 있거든요.

(유미 고개를 끄덕거리며 맞장구 쳐준다. 명호 역시 눈치보며 얼떨결에 고개 끄덕임)

유미 : (갑자기 툭 튀어나오며) 그럼 저 모두 다 딱 한잔 건배하는 건 어때요. 딱 한잔만요.

강직 : 그정도는 뭐 괜찮지.

용만 : 하긴 모두를 위해서 건배 한 번 하는 것 정도는 괜찮겠죠.

강 사장 : 아? 그거 정말 괜찮네유~ (강 사장 다시 화색이 되어 술잔을 들고 앞으로 온다.)

(나머지 인원들도 술잔을 들고 무대 중앙으로 나온다.)

용만 : 자~ 계장님 건배사 한 번 다시 하시죠.

강직 : 그러지 허허 자~ (무슨 건배사를 할까 고민한다.)음...어... 그래!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하여!

나머지 : 위하여~!!!

(술잔을 부딪치면 암전되며 3장 마무리)

제 4 장 (명호의 방)

(평범한 남자 자취방, 여건이 안되면 소품 없이도 가능하다. 명호 술에 많이 취한 듯 비틀거리

며 무대 좌측에서 등장한다.)

명호 : 으어~ 너무 많이 마셨다우... 우웨엑 (명호 계속 비틀거리다. 무대를 넓게 움직이며, 술이 많이 취한 것을 보여준다. 명호 그렇게 비틀거리다 앞에 있는 관객 한명을 뚫어지게 쳐다본다.)

명호 : (관객에게 다가가더니) 동무~! 남조선 공무원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다들 엄청 엄청 힘든데도... 그렇게 술선수범할 수 있다니... 우리 공화국 같았으면 진작에...(갑자기 구토가 몰리는 듯 하다.)

웁...우웨엑... 심지어 술먹는 것도 술선수범 하더라구요...(관객에게 구토하는 모션 취하며 다른 관객에게로 이동)

(명호,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여자관객을 보면, 복에 있는 첫사랑을 본 것처럼 들이댄다.)

명호 : 꽃...꽃님이 아니네? 꽃...꽃님 (구토한다.)우웁

(명호 이렇게 진상 부리는 와중에, 정룡하 무대 좌측에서 등장. 인사불성인 명호를 잠시 한심한 듯 쳐다본 후 명호에게로 다가간다. 그리고 명호 뒤에서 명호의 뒤를 잡는다.)

정룡하 : (화를 꼭 참는 듯) 김명호 도오오웅무...

명호 : 에...앵? 어디서 많이 본 동무인데...

정룡하 : (슬슬 폭발하기 일보직전이다.) 동무...지금 이게 무슨 추태...

명호 : (정룡하의 뺨을 두 손으로 잡는다.) 진짜 어디서 많이 봤는데, 누구였더라. 근데 진짜 어지간히도 못생겼네 이거! 헤헤~~ (계속 정룡하의 뺨을 만지작 거린다.)

정룡하 : (결국 폭발하며 명호의 손을 떼어낸다) 김명호 동무!!!!!!!

명호 : (깜짝 놀라 넘어진다.) 아이고 오마니!!!

정룡하 : 동무 이게 지금 무슨 바보같은 모습인가!!! 어!!!

명호 : (아직 정신을 못차린 듯 정룡하를 뺨히 쳐다본다, 그리고 상황을 파악한 후 두 손으로 뺨을 치고는 다시 재빠르게 일어나 경례한다) 저...정룡하 동무!!!!!!

정룡하 : (화가 머리 끝까지 차오름) 김명호 동무!! 자네 지금 정신이 있는겐가 없는겐가!!! 남조선 공직기강 붕괴의 지령을 받은 지 어느덧 (손가락질하며) 3년이네 3년!!! 한창 임무를 위해 노력해야해도 모자랄 판에!!!! 술에 찌들어서 이게 무슨 바보같은 모습이란 말인가! 이렇고도 자네가 위대한 우리 공화국의 혁명전사라고 할 수 있겠나!!!!

명호 : (당황해서 떨리는 목소리로)저...그게 오늘 이렇게 술을 마신 것도 다르게 아니라...

정룡하 : 비겁한 변명은 필요 없다우!!! 어찌됐든 동무가 이렇게 지지부진하니 결국 내가 이렇게 내려온 것 아니겠나!

명호 : (기가 많이 죽음) 죄송합니다... 동무

정룡하 : 지금 당에서는 동무에 대한 실망이 아주 크네! 결국 (갑자기 분위기 잡는다. 그리고 가슴팍에서 권총을 꺼내 명호에게 겨눈다. 명호 깜짝 놀라 손을 번쩍 든다.) 동무를 제거하고 동무의 자리에 다른 사람을 넣으라는 의견도 나왔지만...(다시 총을 거두며)나의 이 넓은 아량으로 동무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고 했네.

명호 : (떨리는 목소리로) 동무...감사합니다!!

정룡하 : 대신!!! 이번엔 동무와 함께 임무를 수행할 동무 한명이 파견될 걸세.

명호 : (어리둥절) 네? 그게 무슨...

정룡하 : 아무리 생각해도 김명호 동무 혼자로는 답이 없다고 판단해서 말이지... 우리 공화국의 엘리트 중의 엘리트! 림영동 동무가 같이 이번 임무를 수행할 걸세!

명호 : (깜짝 놀라면) 림영동이라면...그 유명한 평양 살췌이!!!!

정룡하 : 그렇다네. 어떤 임무라도 단숨에 성공시키는 우리 공화국의 냉혹한 엘리트! 림영동 동무 말일세..

명호 : (혼잣말로)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다... 그 싸이코랑 같이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니...

정룡하 : 림영동 동무는 이번에 청렴시청 총무과 과장으로 잡입할걸세! 림영동 동무를 도와 충실히 임무를 수행하도록!! 아 그리고 잠시 뒷면 이 곳에 도착할걸세

명호 : (기겁)에~~~에!

(이때 무대 우측에서 림영동 등장한다. 암살자처럼 낮은자세로 빠르게 명호에 뒤로 이동한다. 명호는 당연히 눈치채지 못한다. 그리고 림영동 갑자기 명호를 뒤로 돌린 후 명호의 몸을 마치 칼로 찌르듯 찌른다. 명호 비명을 지르며 우스꽝스럽게 넘어진다.)

림영동 : (자세를 풀고) 한심하기는... 이것 하나도 못막다니!!

정룡하 : (흐뭇한 표정으로) 역시 대단하구만 림영동 동무!

림영동 : 오랜만입니다. 정룡하 동무.

정룡하 : 하하 38선 부근에서 본 뒤로는, 아마 2년만이지...(명호를 쳐다본다) 김명호 동무!!!
어서 일어나지 못할까!!!

명호 : (바보같이 멍하니 있다가 벌떡 일어남) 네!!! 동무!!!

림영동 : 하아...정룡하 동무! 이거이거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이런 햇병아리와 함께 임무라
니요.. 차라리 저 혼자서 하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그려...

정룡하 : (한숨)휴우... 그래도 자네가 이제 들어갈 청렴시청에서 먼저 근무를 하고 있었으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걸세...

림영동 : (못마땅한 표정으로 명호에게 다가간다.) 이봐 햇병아리! 난 그렇게 인정이 많은 사
람이 아니야. 조금이라도 걸리적 거리는게 있으면, 바로(죽는다는 손동작을 취하며) 아웃이야!
아웃! 알겠나!!!

명호 : (겁먹어서, 떨리는 목소리. 하지만 큰 목소리로) 아...알겠습니다.

정룡하 : (명호와 림영동의 중앙으로 이동해서) 자자! 동무들 다들 모여보게나! 앞으로 해야할
세부적인 지령에 대하여 설명하겠네

(정룡하 명호와 림영동에게 무언가를 설명하는 제스처를 취한다. 대사는 없다. 림영동과 명호
정룡하의 말을 경청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셋이서 무언가 음모를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
며, 암전 제 4장 마무리)

제 5 장 (다시 청렴시청 총무과 사무실)

(다시 제1장에서 나왔던 청렴시청 총무과 사무실이다. 강직, 용만, 유미 셋이 어떤 용만이 들
고 있는 종이를 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다. 그리고 명호 무대 좌측에서 쭈뼛대며 등
장한다.)

명호 :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유미 : 어어 명호씨 왔어요? 좋은 아침.

강직 : (명호가 온걸 신경쓰지 못한 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래..

용만 : (역시 신경쓰지 못한 채) 그러게요. 갑자기 이렇게 발령이 날 수 있나?

유미 : 아무리 지금 김 과장님이 건강 때문에 일을 쉬고 계셔도 그렇지. 이렇게 빨리 인사발

령이 나다니...

용만 : 이거 진짜 이의제기 해봐야하는 것 아닌가요?

강직 : 일단 상부에서 내려온 사항이니만큼 지켜보자구...

(명호 계속 꾸뻑대며 있다가 조심스레 한마디 건넨다.)

명호 : 저기... 무슨 일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용만 : 아아! 명호씨 왔네... 아... 명호씨는 못 뵈겠지만, 현재 우리 총무과에는 김청렴 과장님이라고 계시거든. 그런데 명호씨 발령받기 전에 그만 병환으로 쓰러지셔서 지금 치료중이셔. 과장님이 안계셔도 총무과 일에는 크게 지장이 없었는데, 이번에 갑자기 긴급 인사발령으로 다른 과로 전출 가시게 되었거든,

강직 : 그리고 이제 총무과의 새 과장님은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이라고 하더군. 아무튼 참 당황스럽구만...

유미 : 새로오신 과장님 성함이 어디보자...(종이를 유심히 보며) 임...영동? 되게 깐깐하실 것 같은 이름이다.

명호 : (림영동의 이름을 듣자 살짝 오금이 저린다.)하하...그...그러게요..

용만 : 아무튼... 참 무슨 이유로 상부에서는 이런 결정을 내린건지 원...

강직 : 하긴... 나도 무슨 이유인지 도통 감을 잡을 수가 없네...

(이 때 무대 좌측에서 말끔한 차림의 림영동 등장한다. 림영동이 등장하자 다들 낯선 듯 림영동을 쳐다본다. 하지만, 림영동의 정체를 아는 명호는 사시나무 떨 듯 떠난다.)

림영동 : (능숙한 표준어 구사)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긴급 인사발령으로 인해 청렴 시청 총무과로 오게 된 임영동 과장입니다.

(다들 어리둥절 하다가, 강직이 먼저 나서 인사한다.)

강직 : 아~ 네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는 총무과 계장 한강직입니다.(깍듯이 림영동에게 인사하고 악수한다.)

용만 : (뭔가 떨떠름하단 표정으로) 조용만 주임입니다. 반갑습니다.

유미 : (조금 차갑게 림영동을 맞이한다.) 정유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명호 : (계속 떨면서 결국 어리버리한 모습 보인다.) 바...반갑습니다...동무.. 아 !! 아니 과장님... 최근 총무과로 발령받은 김명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림영동 : (눈은 주의를 주듯, 명호를 노려본다. 하지만 대화는 쟈들하게 한다.) 하하 재미있는 친구군요... 잘 부탁드립니다.

명호 : 네...감사합니다.

림영동 : (눈빛과 말투가 다르다.) 다들 다시 한 번 반갑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군요. 다들 재미있고 좋으신 분들인 것 같아 앞으로의 생활이 저~영말 기대가 되는군요.

강직 : 감사합니다. 과장님. 음 오늘은 일단 처음 발령 받으셔서 경황이 없을테니, 간단하게 김과장님 업무 인수인계부터 도와드리겠습니다.

림영동 : (살짝 건방지단 표정으로 강직을 바라본다. 그리고 비꼬듯 이야기한다.) 아~ 아~ 그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미... 업무에 대해서는 숙지가 다 되어 있습니다. 한강직 계장은 그저 자신의 일에만 충실해 주시면 됩니다.

용만 : (림영동의 태도가 마음에 안든다. 살짝 대들 듯 말한다.)아니! 그래도 여기서 근무하신 것도 아닌데... 처음이시면, 한계장님 말씀 듣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림영동 : (용만에게는 더 건방지단 표정으로 쳐다본다. 말투는 차갑게 한다.)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차피 이젠 제 스타일대로 맞출 거니깐 괜찮습니다.

용만 : (화난 목소리로) 아니 그래도 모든 공무에는 순서와 규칙이!!!

강직 : (격양된 용만의 말을 끊는다.) 어허...조 주임...진정해...

(유미, 격양된 용만을 말린다. 명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른다.)

강직 : (황당하지만, 평정심을 유지한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말이 그러시니 업무 인수인계는 생략하고 저희 업무에 충실하겠습니다.

림영동 : (계속 알미운 표정을 짓는다.) 네 그러시지요... 제 일은 하나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림영동 무대 중앙으로 이동해 대사를 이어나간다.)

림영동 : (과장된 손짓) 자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빨리빨리 일을 시작해 볼까요~!

(이렇게 중앙에 림영동 서 있고, 강직은 착잡한 표정, 용만은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은 표정,

명호와 유미는 불안한 표정으로 중앙에 있는 림영동을 둘러싸며 쳐다본다. 그리고 암전되며 제 5장 마무리. 암전시간은 보통 암전시간보다 5초 정도 더 주며, 시간이 조금 더 흘렀다는 효과와 함께 6장 초반이 어두운 분위기로 흘러갈 것을 암시한다.)

제 6 장 (청렴시청 총무과 사무실)

(5장에 이어 6장 역시 총무과 사무실을 배경으로 한다. 하지만 밤이란 것을 표현하기 위해 5장보다 조명은 좀 더 어둡다. 명호,강직, 용만, 유미 손에 종이컵을 들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하지만 표정은 그렇게 썩 좋지 않다.)

유미 : (한숨)휴 요즘 일하는 게 왜 이렇게 재미가 없죠. 심지어 오늘은... 야근이라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용만 : (맞장구 쳐준다.)왜긴 왜겠어... 요즘 우리 총무과의 독재자 과장님 때문이지.

강직 : (조심스럽다는 듯) 어허 조 주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명호 : (림영동을 변호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다.)그...그래도 요즘 과장님 계셔서 그런가... 일은 빠르게 빠르게 잘 처리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유미 : (비아냥대듯)네네 하긴 그렇지...맨날 자기식대로 자기가 다 처리해 버리니깐 말이야.

용만 : 그러게... 궁금해서 여쭙보면 맨날 (림영동을 비꼬듯 따라함) “다 제가 알아서 했습니다. 신경쓰지 마세요~ ” 이러시니 원... 뭔가 수상쩍단 말이야..

강직 : (심각한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턱을 만지며) 흠....

유미 : 그러니깐요, 제가 몰래몰래 봤는데, 서류도 계속 이중으로 따로 작성하시는 것 같고, 이상하리만큼 외근도 찾으시잖아요.

강직 : 자... 근거없는 추측은 자제하고 일단 빨리 일들 마무리 합시다.

명호, 용만, 유미 : (힘없는 목소리로) 네..

이 때 벨소리가 울리고 용만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받는다.)

용만 : 네 여보세요...(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짐) 아... 네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은 용만 한숨을 쉰다.)

유미 : 조 주임님 왜 그래요..? 혹시 병원?

용만 : 네... 이번 주까지 남은 수술비랑 입원비 입금해 달라는데... 휴우... 조만간 친구들한테라도 연락 해봐야겠어요..

강직 : 이런... 조 주임 병원비가 어떻게 되나?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은데..

용만: (손사레치며)아이... 아니에요.. 지금 계장님도 엄청 힘드실텐데... 이번에 또 아이들 때문에 큰돈 필요하시다고 하셨잖아요...

강직 : (한숨쉬며) 하아... 이것 참... 다들 어찌면 좋누...

(침울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이때 무대 좌측에서 림영동 등장한다. 림영동에 손엔 서류철 두권이 있다.)

림영동 : (왜 침울한 분위기인질 알지만, 마치 모른다는 웃음으로) 하하! 우리 총무과 식구들. 왜 이렇게 침울해 보이시죠? (강직, 용만, 유미 사이 사이를 얄밋게 돌아다니며, 약을 올리는 듯한 행동을 한다.)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이거 이거 알 수가 없네...

림영동 : (마지막으로 명호에게 다가간다. 하지만 표정은 살벌하다.) 명호씨~! 혹시 명호씨는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명호 : (겁먹으며) 아... 저 그제... 그러니깐... 조용만 주임 어머니 수술비가 글썄... 저

림영동 : 아~아~ 저런... 조 주임 어머니 이야기는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시다. 이거 참... 안타깝군요... 이걸 어찌면 좋죠...? 돈도 한 두푼 드는 것도 아니고...

용만 :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일이니 제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림영동 : 이런이런~ 그거 너무 섭섭한 말 아닙니까? 아무리 제가 부임한지 얼마 안됐어도 그렇죠.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그 옛날 김청렴 과장과 맞먹는 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림영동 서류를 들어서 펼치며) 심지어 여러분들을 위해 작은 선물도 준비했는데...

강직 : 임과장님 그제 무슨 소리시죠?

림영동 : (궁궁이가 있다는 웃음을 보인다.) 한강직 계장님, 지금 두 아드님과 부인께서 미국에서 유학 중이시죠? 생활비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다고 들었는데...

강직 : 그걸 어떻게...

림영동 : 당연히 알아야지요~ 우리는 식.구 니깐요. (다음으론 유미를 바라본다.) 그리고 정유미씨. 정유미씨도 고생이 많으시네요. 현재 상환해야할 학자금에, 이래저래 대출받

은 돈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젊은 나이에 이걸 어찌면 좋나...

유미 : 그...그건...

림영동 : 그래서 제가 이번에 힘을 좀 썼습니다. 이번 청렴축제 예산안을 보니 이래저래 낭비 되는 돈이 많더군요. 그래서... (두 번째 서류철을 보여주며, 교활한 표정을 짓는다.) 제가 약간 수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 서류들은 각자 다른 곳에 제출 되고 보관될 것입니다. 제 말뜻 이해하셨나요?

강직 : 과장님 설마! 그 차액을...! 그건 횡령이지 않습니까!

용만 : 과장님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분명 들통날 겁니다!!

림영동 : 오우~ No problem! 이미 축제 관련 인원들과는 입을 맞춘 상태입니다. 그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하하... 제가 조금 외근을 많이 나가는 했죠? 여러분은 아무 것도 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머릿속에 이 한 마디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분배는 모두 만족스럽게 이루어질테니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유미 : 아니! 저희보고 범죄를 그냥 묵인하라는 말인가요!!

림영동 : (어두운 bgm 흐른다. 잠시 직원들을 바라보더니 무대 중앙으로 다가온다. 대사는 관객들에게 하듯 앞을 보며 한다.)묵인의 댓가는 달콤할 것입니다. 정의, 청렴... 참 좋은 말이지요... (목소리를 높이고, 무엇인가를 잡은 듯 주먹을 쥔 다음 앞으로 내민다.)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무엇을 쥐어줍니까? (마치 모래를 흘리듯, 주먹 쥔 손을 힘없이 푼다.)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직원들을 바라본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처지를 생각해 보세요... 눈만 잠시 감으면 됩니다... 눈만 감고 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입니다.

(직원들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 명호는 계속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림영동 : 시간은 길게 드릴 수 없습니다. 침묵은 곧 긍정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서류는 곧 상부로 제출될 것입니다. 침묵 후 다가올 달콤함은 마음껏 즐기셔도 됩니다. 그럼 이만

(림영동 무대 좌측으로 퇴장하려는 직원들 모두 고개를 들고 용만 림영동에게 소리친다. 명호는 직원들을 보고 깜짝 놀란다.)

용만 : 아니오! 즐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지저분한 달콤함은 필요 없습니다!

림영동 : (찌그린 표정으로 돌아선다.) 네?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유미 : 어이가 없는 건 저희들이죠! 어디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보세요. 임과

장님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어휴 말도 안되는 소리 하면서 개 똥폼은 다잡아요.. 병신같은 게...

림영동 : (평정심이 이때부터 흔들린다.) 뭐...뭐라고요. (아무말 없는 강직을 향해) 이봐요! 한계장 부하직원들 상태가 아주 불량하군요!! 이거 엄청난 문제 아닙니까?

강직 : 네 문제입니다.

림영동 : 그렇죠! 역시 한계장이 공직생활을 오래 해서 잘 아는 군요! 어서 빨리 이 친구들한테 제 이야기를 잘...

강직 : (림영동의 말을 끊으며) 이런 직원들을 두고도 잠시 딴 생각을 한 내가 문제이네요! 큰 일날 뻔 했네요! 임영동 과장님 (림영동에게 다가가 림영동의 서류를 빼앗는다. 림영동 당황한다.) 그래요. 지금 저 미친 듯이 힘듭니다. 외국에 있는 자식들 얼굴은 하도 안 본지 오래 되서 가물가물하고, 마누라랑은 매일 돈 문제로 한숨만 쉽니다. 쥐꼬리만한 계장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되거든요.(휴지) 침묵하면... 편해지겠죠... 그래 편해지겠지... 그런데! 나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라고요..!

고지식하고, 융통성 없고, 딱 막혔다는 소리를 매일 듣고 살지만... 우린... 그게 맞는 거지요...(목소리를 높이며)우리에게!! 그게 맞는겁니다!!! 더 할말도 없습니다. 이 서류는 내일 당장 신고 하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소신을 더럽히지 말아주십시오.

(잠시 정적이 흐른 후, 림영동 갑자기 어이가 없다는 듯 웃는다)

림영동 : 하하하하하!...(갑자기 표정 차갑게 변한다.)이...간나새끼

명호 : (엄청 당황) 에...에?

림영동 : 대단한 청백리들 나섰구만...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어... (기분나쁜 미소를 짓는다.) 이봐 동무들...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굳이 벼랑 끝으로 나아가는구만....

뭐... 하긴 어떤 선택을 해도 결과는 비극이었겠지만...

그래도... 죽음은 면할 수 있었을 텐데...

(림영동 엄지와 중지를 튕기며, 신호를 보낸다. 그리고 갑자기 암전. 명호와 직원들 깜짝 놀라 우왕좌왕 거린다. 그리고 불이 다시 켜지면, 베테랑 간첩 3명이 강직, 용만, 유미를 제압하고 총을 들이대고 있다.)

용만 : 이...이게 무슨 일이야...!

유미 : 으아악!!!

림영동 : 미안하네 동무들... 작전이 실패했으니, 플랜 B로 넘어가야지 않겠어? 그렇지 않나?

(가만히 있는 명호를 바라보며)김명호 동무..

명호 : (당황해서)도...동무 이걸 계...계획에 없던 일이 아닙니까?

강직 : 동무?? 설마 명호씨!!

림영동 : 그렇지... 대강 상황파악은 했을 것 같으니, 이제 빠르게 일을 처리해야겠구만,

유미 : 아!!! 제발...살려주세요.!! 제발..

림영동 : (유미에게 가더니 유미의 턱을 우악스럽게 잡는다.) 그러게, 너무 나대지 말았어야지.

(림영동 유미의 뺨을 치기 위해 손을 든다. 그때 명호 유미 앞으로 와 림영동을 말린다.)

명호 : 동무!! 진정하시라우!! 이...이 사람들은 아무 죄가 없지 않습니까!

림영동 : (명호의 목살을 잡으며) 걸리적거린다우 동무! 방해하지 말라우 (명호를 내동댕이친다.) 동무도 조심하라우! 같이 개죽음당하기 싫으면...

직원들 : 명호씨!

명호 :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핸드폰을 만지작 거린다. 그리고 핸드폰에 대고 말을 한다.)
살려...주시라우....

림영동 : (의아한 표정으로) 동무 지금 뭐한건가?

명호 : (핸드폰을 내동댕이치고 일어선다.)죄송...합니다. 동무.. 그리고 정말 죄송했습니다..여러분.. (명호 갑자기 무대 우측으로 달려간다. 그리고 전기 스파크 튀는 소리가 들리고 암전된다. 무대 위 사람들 모두 놀라 우왕좌왕한다. 그리고 어두운 무대 속에서 명호 괴성을 지르며 달려온다.) 이야야야야!!!!

(주먹소리, 총소리, 온갖소리가 다 들리며, 싸움이 일어난다. 그리고 잠시 후 경찰 싸이렌 소리 울린다. 싸이렌 소리 조금 길게 틀며, 상황이 종결되었다는 것을 관객들에게 각인시킨다.)

(다시 불이 켜지면, 반대로 림영동과 간첩 1,2,3 경찰들에게 제압당해 있다. 강직,용만,유미는 그 옆에서 같이 붙어서 숨을 고르고 있으며, 명호는 중앙에 홀로 멍하니 서있다.)

림영동 : (제압된 상태로 악을 쓰고 있다.) 이거 놔!! 놓으라우!! 김명호 이 간나새끼!! 감히 네가 우릴 배신해!!

김명호 : 죄...죄송합니다. 동무... 하지만, 이들을 위험에 빠지게 할 순 없었습니다.

림영동 : 하! 사사로운 정에 빠져, 대의를 그르치다니...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똑똑히 알길 바라네!!

(제압된 림영동과 간첩 1,2,3 경찰들에게 연행되며 무대 좌측으로 퇴장한다. 그리고 무대 좌측에서 멍하니 서있는 명호 앞으로 국정원 직원이 등장한다.)

국정원 직원 : 김명호씨. 소중한 신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와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명호 : (체념한 듯) 네... 알겠습니다.

강직 : 명호씨...어떻게 자네가...

명호 : (직원들을 바라보며 열게 미소 짓는다.) 여러분...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국정원 직원 : 자. 이제 따라오시죠. (국정원 직원 명호에게 수갑을 채우고 연행한다.)

직원들 다 함께 : 명호씨!

(국정원 직원과 함께 퇴장하는 명호와 그런 명호를 안타깝게 쳐다보는 직원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천천히 암전된다.)

에필로그 (청렴시청 총무과 사무실)

(다시 정돈된 총무과 사무실이 보여진다. 용만, 유미 자기 자리에서 일에 열중한 듯 앉아있다. 그리고 무대 좌측에서 강직 멀끔한 차림으로 등장한다. 강직의 손에는 고급스러운 상장이 들려져있다.)

강직 : (반갑게 손인사하며) 다들 별일 없었지요?

용만 : 네! 별일 없었습니다~ 한 과장님!

강직 : (멋쩍게 웃으며) 하하 아직도 어색하구만, 한 과장이란 말이.

유미 : 진짜 올해 과장님 운세 너무 대박이지 않아요? 과장 승진에 청렴공무원 포상까지~!!

강직 : 그러게 말이야! 작년에 우리 모두 너무 힘들었는데, 올해는 다 좋은일만 생겨서 기분 좋구만 그래 허허

용만 :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회식 한 번 꼭 때리시는 것 어떨습니까?

유미 : 어이구 괜찮으시겠어요? 조 주임님? 여자친구분한테 안 혼나겠어요?

용만 : 그거는 어... 그러니깐...

강직 : 어이구 조 주임 여자친구한테 꼼짝을 못하는 구만... 하긴 얼마만의 연애야 하하하

용만 : 아이 부끄럽게... (뭔가 생각난 듯) 아아!! 그건 그렇고 오늘 그 새로운 계약직 한 명 오는 날 아닌가요?

유미 : 아 맞다. 그랬었지! 아니 근데 지금 시간이 몇시인데, 아직도 안오는거야!! 오기만 해봐라!! 아주 그냥!! 혼썰을...!!

강직 : (한숨)어휴... 난 아직도 새로운 친구들 들어올 때면 명호씨 생각이 자꾸 나네...

용만 : 그러게요... 명호씨는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을려나...

유미 : (살짝 울먹인다)아니...갑자기 슬퍼지게 왜...그러세요...

(직원들 명호 생각에 잠시 침울해진다. 그리고 이 때 명호 다시 신입사원같은 모습으로 쭈뼛거리며 무대 좌측에서 등장한다. 직원들 침울해 하느라 명호가 온지 모른다.)

명호 : 저...저기...

유미 : (뒤돌아보며) 네 무슨 일이시죠? (잠시 명호를 보고 정적 그리고 깜짝 놀람)에에에!! 명호씨!!

강직, 용만 : (갑자기 명호란 소리를 듣고 고개를 번쩍 든다.) 뭐라고?! 명호씨?

명호 : (쭈뼛거리고 부끄러워 하지만 표정은 밝다.)아...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청렴시청 총무과로 발령받은 김명호라고 합니다... 조금 늦었습니다...반갑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희망찬 분위기의 BGM 흐르며, 강직, 용만, 유미 명호를 차례로 끌어안고 반가워한다. 다들 명호를 둘러싸고 그동안의 안부를 묻는 모습을 보이며, 천천히 암전된다.)